

수양딸 봉침목사, 광예남 할머니 이용 논란

〈광주·전남 마지막 위안부 할머니〉

호적에 양딸로 이름 올려 모금 활동... 후원금 착복 의혹 조카는 영농법인 세워 정부 보상금 1억원 법인 명의 유용

한때 소설가 공지영씨와 '봉침 스캔들' 사건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여성 목사가 광주·전남의 유일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인 광예남(94) 할머니의 양녀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뒤 후원금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3일 방영한 '봉침 스캔들 목사의 수상한 호적'을 통해 담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 할머니가 지난해 12월 25일 정지인, 자치단체장에게 보낸 100통의 편지 진위 여부와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받은 '화해치유재단 합의금' 1억원의 행방을 추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 할머니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의 필체를 감정 한 결과, 젊은 여성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에 동봉된 연락처도 젊은 여성의 전화 번호였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17년 전국

을 뒤흔든 '봉침 스캔들'의 주인공인 A(여·45) 목사였으며, 현재 광 할머니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 수양딸이 된 상태다.

일각에선 A씨가 광 할머니의 수양딸이 된 것은 할머니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A씨는 할머니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모금을 유도하는 글을 올렸다.

또 광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에서 합의금 1억원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카 B(62)씨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인삼 수경재배를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주소지는 현재 할머니의 자택으로, 할머니는 해당 법인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1억원으로 할머니의 집을 지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여목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외부와의 연락이나 접촉이 두절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카 B씨는 2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목사 A씨가 지난해 8월 이모님(광예남)의 정식 딸이 된 건 맞다"면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광 할머니는 평소 자신이 죽은 이후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점을 걱정했으며, 지난 2017년 SNS를 통해 광 할머니와 인연이 닿은 A씨가 딸을 자칭해 할머니의 호감을 샀다. 또 지난해 12월 25일 보낸 광 할머니의 편지는 항상 남에게 모시고 있는 조카 B(62)씨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인삼 수경재배를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주소지는 현재 할머니의 자택으로, 할머니는 해당 법인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1억원으로 할머니의 집을 지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특히 '화해치유재단 합의금' 1억원으로 이모님 집을 지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순 문제

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B씨는 "영농법인을 운영하다 이모님이 돌아가신 후 기념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이모님의 안전을 우려한 A씨가 사비를 들여 마련해 준 것으로, 합의금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 할머니는 1944년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에서 60여 년간 생활하다 지난 2004년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 피해자다. 광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폐암 4기로 판정을 받고 광주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이며, 치매증세도 보이고 있다.

수양딸 A씨는 소설가 공지영씨의 의혹 제기와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천사 목사와 정의사제, 헌신인가 기만인가?' 편을 통해 자격증도 없이 장애인, 아동, 심지어 남성의 은밀한 부위까지 봉침을 놓고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A씨는 방송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부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에 할머니 유가족들이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망월공원묘지에서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수요 분석 착오 교사 167명 채용 안해” 전교조 전남지부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최근 단행된 전남도교육청 교원 인사와 관련해 교사 수요 분석 착오를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인사 수급 예측 착오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기간제 교사를 늘려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쳤다고 전남지부는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시각장애 이동권 제약이 있는 교사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학교로 배치되기도 했다”며 “장애인 인권의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발령을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그러면서도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를 2월 초로 앞당긴 것은 ‘학교 현장에 새 학기를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라며 긍정평가 했다.

전남지부 지적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 퇴직 등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 퇴직 인원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 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日사죄·배상 끝내 못받고... 강제징용 심선에 할머니 별세

2014년부터 미쓰비시 상대 법정투쟁...광주 망월묘지공원 안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에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24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에 따르면 심 할머니는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께 별세했다. 심 할머니는 1930년 광주시 북구 북동에서 3남 6녀 중 둘째로 태어나 1944년 광주 수창초등학교(당시 북정공립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그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에 강제징

용 돼 갖은 고생을 하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20여년 간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 하던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심 할머니의 아들 조모 씨는 “어머니는 광주에서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셨다”며 “(소송이 길어져)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손자 박준영 씨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당당히 싸워나가셨던 할머니에게 긍지를 느낀다”며 “손자들을 많이 아껴주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기동병원에서 유가족과 교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예식으로 고(故) 심선에 할머니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묘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6·25참전 용사인 남편의 묘소가 있는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마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8 해질 18:24 달뜨기 --:-- 달짐 10:49

포근한 오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맑음	1/14	보성	맑음	1/14
목포	맑음	2/9	순천	맑음	4/16
여수	맑음	5/15	영광	맑음	-1/10
나주	맑음	-2/14	진도	맑음	1/10
완도	맑음	4/13	전주	맑음	1/12
구례	맑음	0/15	군산	맑음	-1/10
강진	맑음	1/14	남원	맑음	0/13
해남	맑음	-1/11	흑산도	맑음	5/9
장성	맑음	-2/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생활지수

- 높음
- 높출중
- 매우 높음
- 나쁨
-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20	06:21
	23:40	18:33
여수	06:52	00:55
	19:06	13:03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3/1(금)	2(토)	3(일)	4(월)
☀	☁	☁	☀	☁	☁	☀
-1/14	3/14	4/14	0/13	3/12	4/11	3/11

광주·전남 올 봄 평년보다 황사 잦을 듯

올 봄 광주·전남은 황사가 평년보다 기승을 부리고, 따뜻한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3월-5월)'을 발표하고 "봄철 황사의 발생일수는 평년(5.2일)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을 예측하는 등 봄철 전체 황사 발생 일수는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 또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몽골 및 내몽골 고원 지역에 눈이 덮여 있으나 봄이 되면 대부분 녹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봄이 오면 황사 발원지가 황사 발생이 용이한 지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황사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전남 지역의 봄철(3-5월) 황사 발생일수를 살펴보면 평년(1981-2010년) 5.2일, 최근 10년간(2009-2018년) 4일로 나타났다. 역학기반 황사예측 모델에서도 평년수준보다 높은 황사 발

광주 서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생활·복지실태 조사

광주시 서구가 지역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등에 나섰다.

조사 결과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인 안전확인(방문·전화), 건강관리·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생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4일 서구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독거노인 실태조사는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며, 54명의 생활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서구 내 6300명의 노인으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신재생에너지 3개 단태양광·전력·전선·제약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장려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